

교통사고 광주 발생률·전남 사망률

4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광주시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만대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교통사고 불명예 1위 행진은 지난 2004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어 광주·전남 지역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사고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이중 절반 가량은 자동차가 밀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7년도 교통사고 분석 통계'를 발표했다.

◇광주 교통사고 전국 최고= 2007년을 기준으로 광주에는 47만2천868대의 자동차가 등록됐고, 같은 기간 7천9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로 보면, 167.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 116.6건에 비해 44% 가량 높은 수치로,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은 강원도(145.9건)와 비교해도 21.4건이나 차이가 났다.

전남도의 1만대당 사고 건수는 143.1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경북 139.1건, 대구 136.4건, 전북 135.1건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지난 2004년 자동차 1만대당 181.4건의 사고가 발생, 전국 최다 사고율을 보인 이후 2005년 166.1건, 2006년 166건으로 4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광주시 지자체별로 동구가 206.4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났으며 ▲서구 184.5건 ▲광산구 167.2건 ▲북구

▲교통안전지수=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등 기초자료와 교통사고 발생률 및 교통사고 희생률을 산출해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수준을 계량화시킨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구·시·군 등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충남 6.4명, 경북 6.3명, 강원 5.6명, 전북 5.4명 순으로 교통여건이 안좋은 도 단위 광역단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1.4명으로 가장 적었고, 인천 1.9명, 대구 2.1명, 부산 2.4명, 대전·울산 2.5명 등 광역지역은 전국 평균 3.4명을 밀쳤다.

전남은 지난 2004년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0명으로 최다 사망률을 기록한 이래 2005년 8.0명→2006년 7.4명→2007년 7.3명으로 사망자 수는 점차 줄었지만, 사망률 1위를 내준 적은 없었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합평군이 1만대당 15.6명이 사망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영암군(15.1명), 보성군(13.5명), 장흥군(13.4명), 강진군(13.0명) 등의 사망률도 높았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서울 성북구 0.7명, 서울 송파구 0.8명, 구로구 0.9명 등 서울지역의 사망률은 낮았다.

◇광주·전남 교통안전지수 낮아= 광주의 교통안전지수는 114.6으로 전국 11위, 전남은 133.9로 전국 13위에 그쳤다. 이는 전국에서 11번째와 13번째로 교통환경이 안 좋다는 뜻이다. 서울은 88.5로 1위를, 경북은 146.6으로 끌찌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광주·광산구와 남구가 전국 69개 구(區) 가운데 각각 61위와 60위를 차지해 하위 10위권에 포함됐으며, 전남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 지난해 기준 자동차 73만5천645대를 보유한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1만 5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중 534명이 숨졌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7.3명으로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2007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순위	지역	자동차 1만대당 발생 건수	지역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1	광주	167.3	전남	7.3
2	강원	145.9	충남	6.4
3	전남	143.1	경북	6.3
4	경북	139.1	강원	5.6
5	대구	136.4	전북	5.4
6	전북	135.1	충북	4.6
7	충북	127.5	제주	4.1
8	제주	127.3	경남	3.9
9	서울	118.2	광주	3.3
10	인천	115.2	경기	3.0
11	울산	107.7	울산	2.5
12	경남	102.6	대전	2.5
13	경기	102.1	부산	2.4
14	충남	101.6	대구	2.1
15	대전	95.8	인천	1.9
16	부산	90.8	서울	1.4
	전국 평균	116.6		3.4

166.3건 ▲남구 120.4건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전국 평균은 2004년 132.4건→2005년 126.3건→2006년 121.6건→2007년 116.6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남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 지난해 기준 자동차 73만5천645대를 보유한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1만 5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중 534명이 숨졌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7.3명으로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맥주를 차세히 살펴보니

병 뚜껑과 페트병에 부착된 상표가 각기 달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N씨가 두통 증세 등을 계속 호소함에 따라 맥주병을 수거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N씨가 입원 치료 중인 병원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서는 독극물을 포함한 약물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N씨가 맥주병과 함께 건네 받은 뒤 버린 전단지를 찾는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홍보용 맥주 마신 20대 입원…경찰 수사

20대 여성이 자신의 가게에 보관 중이던 맥주를 마시고 두통을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N(여·28)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자신의 A피자가게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1.6ℓ 짜리 페트병에서 맥주 한 모금을 마신 뒤 두

통과 현기증을 느껴 광주 I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N씨는 지난달 29일 한 남성이 가게를 찾아와 "최근 친구가 계를 차렸는데, 흥보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건넨 페트병 맥주 1병을 가게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N씨는 경찰에 "이 남성이 건넨 맥주를 차세히 살펴보니

병 뚜껑과 페트병에 부착된 상표가 각기 달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N씨가 두통 증세 등을 계속

호소함에 따라 맥주병을 수거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

했다. N씨가 입원 치료 중인 병원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서는 독극물

을 포함한 약물 반응이 전혀 없었다

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N씨

가 맥주병과 함께 건네 받은 뒤 버린

전단지를 찾는데에도 수사력을 모으

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8일 오전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인 광주시 남구 모 유통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연휴 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고 주장했다.

“미 쇠고기 차례상 올리지 맙시다”

비상시국회의, 추석맞아 '新3不 운동' 전개

미국산 쇠고기는 사지도 팔지도 먹지도 말자는 '3불(不) 운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가 추석연휴를 맞아 앞두고 '추석맞이 신(新) 3불 운동'을 강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8일 오전 미국산 쇠고기 유통회사인 광주시 남구 모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를 차례 상에 올리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석연휴가 끝나고 기존에 진행했던 3불 운동과 함께 학교, 병원 등 공공급식소를 광우병 안전지대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시국회의는 지난달 17일 100회 촛불집회 이후 주말에만 집중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불매운동과

유통저지 등 '생활밀착형' 반대운동

을 벌이고 있다.

쇠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수입업체와 정부가 쇠고기 판매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기점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유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석연휴가 끝나고 기존에 진행했던 3불 운동과 함께 학교, 병원 등 공공급식소를 광우병 안전지대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수입 쇠고기 47건에서는 시중동군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8일 오전 미국산 쇠고기 유통회사인 광주시 남구 모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를 차례 상에 올리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시국회의는 지난달 17일 100회 촛불집회 이후 주말에만 집중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불매운동과

유통저지 등 '생활밀착형' 반대운동

을 벌이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마약 손단 태국인 근로자 20명 집유

광주지법 "이국땅 고생 참작"

신종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돼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인 광주 하남산단 등지의 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 침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8일 신종 마약인 '이벼'를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미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28)씨 등 태국인 근로자 20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국 땅인 한국에 들어와 힘들게 일하면서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태국으로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씨 등의 모국인 태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이벼'는 동남아 최대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쿤사'가 하로

뽕과 카페인 등을 섞어 제조한 알약

형태의 마약으로 최근 국내에서 빠르

게 확산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입 쇠고기 41%

식중독균 검출

수입 쇠고기의 미생물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중준(한나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육 미생물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미생물 검사를 시행한 수입 쇠고기 718건 가운데 41.2%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 48.9%가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돼 있었다.

같은 기간 수입 쇠고기 47건에서는 시중동군 리스테리아균도 검출됐다.

리스테리아균은 고열과 두통, 복통, 설사,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특히 임산부와 노약자,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은 심각한 증세를 초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성매매 알선 미끼

억대 사기 4명 적발

전남경찰청은 8일 성매매 알선을 미끼로 거래하는 회원가입비를 가로챈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서모(2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